



공허의 간극

ALEX ACKS

스토리
ALEX ACKS

일러스트
SURFSIDE 3D

편집
CHLOE F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CHEUNG TAI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NASTASIIA NALYVAIKO,
TAKAYUKI SHIMBO**

감사한 분들
VALERIE STONE



Blizzard.com

© 2025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스팟 아트

“이 게 머리 울리는 소리야..... 문 두드리는 소리야?” 엠브릭이 포도주에 절어 축축해진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중얼거렸다.

“문.” 룸매스가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베개에 얼굴을 처박은 상태라 목소리가 흐릿했다.

“누가 나가서 열어줘야겠지.”

“그래야겠지.” 룸매스가 맞장구쳤다. “자네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하지.”

“제발 참아 줘. 소리만으로도 죽겠으니까.” 엠브릭은 신음 한 번 내뱉고는 룸매스의 희미한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소파에서 굴러떨어졌다. 하이 엘프에게는 눈 깜짝할 새지만, 달라란에서 학생으로 지낸 7년 동안 이토록 숙취가 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함께 비전 마법을 공부하는 친구들, 그중에서도 룸매스는 평소에는 마음의 위안이자 영혼의 활력소였지만 오늘만큼은 두통의 주범이었다..... 물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은 자초한 감이 있었다. 네 곳의 선술집을 순회하고 나서, ‘대마법사의 잔’이라는 카드 놀이로 마무리된 종강 연회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태였으니까. 심지어 덱은 전부 대마법사 카드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햇살이 눈을 찌르자 엠브릭은 얼굴을 찡그리곤, 키린 토에서 학생용 숙소라고 칭하는 좁은 방을 비틀비틀 가로질렀다.

문을 여는 순간 어떤 꽈를 보게 될지 상상도 못 했다. 흥수? 화재? 아니면 마법이 부여된 식인 치즈케이크 무리? (가만, 그건 지난주 일이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썩어가는 책 한 권이 얼굴 앞에 휙 들이밀어졌다. 마치 커다란 월척을 자랑하듯 휘두르는 손길에 엠브릭은 반사적으로 물러섰다.

“룸..... 아, 네 녀석이었군. 엠브릭. 이제야 열어주네.”

엠브릭은 눈을 가늘게 뜨고 책 뒤의 창백하고 가름한 얼굴을 바라봤다. 평소의 동한 표정 대신, 거만함과 광기 사이 어딘가의 미소가 얼굴에 번져 있었다. “다르칸..... 이게 무슨.....?”

다르칸 드라시르는 당당하게 들어와서는 손짓 한 번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세계를 뒤흔들 천재를 문 앞에 세워두면 안 될 일이지.”

“뭐라고?” 엠브릭이 되물었다.

다르칸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앞으로 몸을 숙여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온갖 혐오가 담긴 눈빛을 던졌다. “엠브릭, 포도주는 마시라고 있는 물건이야.” 다르칸은 롬매스를 힐끔 쳐다봤다. 담요에 파묻혀 번데기처럼 몸을 만 롬매스를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둘 다 이 꽈로는 쓸모가 없군.” 다르칸은 엠브릭을 가리키더니, 롬매스가 식탁이라고 주장하는 작은 탁자를 삿대질했다. “앉아.” 다르칸은 놀라울 만큼 능숙하게 롬매스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고는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독한 약초 차를 끓였다.

그 말이 전부 허풍은 아닌 모양이었다. 채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엠브릭은 집나갔던 생기가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고, 롬매스는 다르칸이 가져온 고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음. 해냈군, 다르칸.” 롬매스가 건조하게 말했다. “자네보다 악필인 사람의 책을 드디어 찾았군그래.”

다르칸이 눈을 굴렸다. “암호문이잖아, 머저리야.”

엠브릭은 롬매스의 손을 쳐내고 고서를 끌어당겨, 거미줄처럼 얹힌 글씨를 들여다봤다. “이걸 해독했다는 건가?”

“거의 다.”

“거의 다라.” 롬매스가 되받았다.

수수께끼 같은 활자들의 항연은 신비하게도 엠브릭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숙취

수수께끼 같은 활자들의 항연은
신비하게도 엄브릭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숙취 탓인지 몰라도,
엄브릭은 눈을 떼면 글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윽고 서서히 단어가,
그리고 문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탓인지 몰라도, 엠브릭은 눈을 떼면 글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윽고 서서히 단어가, 그리고 문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흥미롭군.” 책 자체가 독자의 이해를 갈구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르칸.”

롬매스는 책을 낚아채며 펼쳐진 쪽을 노려봤다. “둘 다 나 놀리는 거지?”

“설마?” 다르칸이 짓궂게 놀렸다. “내가 자네의 매력조차 통하지 않는 고서를 찾은 걸까?”

하지만 엠브릭은 둘도 없는 친구의 짜증이 평소의 투덜거림을 넘어 진짜 폭발 직전이라는 걸 감지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자존심을 동시에 달래줄 기분이 아니었다. “이제 슬슬 그 책을 어디 쓸 건지 말해주면 좋겠는데, 다르칸.”

“나도 잘 모르겠어.” 다르칸이 걱정스럽다기보다 오히려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실험이란 원래 그런 거잖아.”

‘역시 다르칸답네.’ 엠브릭은 생각했다. 그런 무모한 버릇 덕분에 둘은 처음부터 친구가 됐다. 다르칸이 처음 엠브릭을 찾아왔을 때도 그랬다. 잡화점의 구석에서 찾았다는 정체불명의 먼지투성이 수정을 들고 와서는 문을 두드렸다. 그 뒤 벌어진 온갖 실험의 결과는 참담했다. 폭발이 일어나 엠브릭 방의 창문은 모조리 날아갔고, 집 안의 나무가 반쯤 지각 있는 사탕으로 변해버렸다. 변해버린 나무토막들이 드워프 성가를 불러대자, 평소 점잖던 루매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구르며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새로운 음이 울릴 때마다 또 한 번 폭소를 터뜨렸고, 그때마다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다르칸 드라시르가 광기에 들떠 나타나는 순간들은 언제나 한마디로 요약됐다. “처음에는 좋은 생각 같았는데.” 그리고 엠브릭은 달라란의 넘쳐나는 비전 지식을 준대도 그 모든 순간과 맞바꿀 생각이 없었다.

“또 실험인가?” 루매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소리에 찻잔 속 차가 넘쳐흘렀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겠지?” 익숙한 말투에 엠브릭은 피식 웃었다. 루매스는 언제나 규칙을 중시하는 모범생이었고,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걸 싫어했다. 하지만 엠브릭은 그의 눈빛에서 반짝이는 호기심을 놓치지 않았다. 종종 고지식한 모습을 보이긴 해도, 루매스가 달라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날카로운 두뇌와 그에 걸맞은 호기심 덕분이었다.

이쯤 되면 엠브릭이 나설 차례였다. 성격이 정반대인 두 천재 마법사를 잇는다리, 그게 엠브릭의 역할이었다. 게다가 이번엔 자신도 호기심이 동했다. ‘이 책이 전하려는 걸 알고 싶어. 그리고 다르칸이 들고 온 물건 중, 셋이 함께 해결 못 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지.’ “왜 그래, 루매스. 다르칸이 아직 우릴 죽음으로 내몰진 않았잖아.”

“최선을 다했음에도 말이지.”

엄브릭은 루마스의 짜증 섞인 어조가 체념으로 바뀐 걸 듣고 속으로 미소 지었다. 다르칸을 향해 웃지는 않았지만. “좋아,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셋은 힘을 합쳐 루마스의 가구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낡은 양탄자를 말아 올려 굽힌 자국투성이인 나무 바닥을 드러냈다. 닦아내려면 한참 걸릴 듯한 바닥에 세 사람은 짧은 분필로 마법진을 그렸다. 다르칸 드라시르는 그 뒤를 따라가며 여기저기 기호를 덧붙여 비전의 흐름을 모으고 방향을 잡았다.

“루마스, 자넨 북쪽을 맡아.” 다르칸이 마법진 한쪽을 가리켰다. “엄브릭, 자네는…… 남쪽으로.” 다르칸이 책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엄브릭은 분필로 그린 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 섰다.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언제나처럼 다르칸이 신이 나서 주문을 구성할 동안, 루마스와 함께 안정시키는 게 엄브릭의 역할이었다. 수습생으로서 이미 터득한 일이었다. 요즘 엄브릭은 이런 역할을 맡는 일이 잦았다. 루마스나 다르칸, 그리고 다른 몇몇 학생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찾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엄브릭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할 수만은 없었다. 언제나 변두리를 기웃거리며 마음이 끌리는 영역을 찾아 헤맸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 심지어 교수들도 슬슬 엄브릭을 ‘재능은 있으나 산만한 학생’이라 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엄브릭이 자기 수업에 찾아와 앉는 걸 막지는 않았다. 기원이든, 환영이든, 창조든, 점술이든…… 엄브릭은 모든 걸 흥미롭게 느꼈고, 그때마다 몰입했다가 다시 새로운 분야로 시선을 옮기곤 했다.

한편 다르칸은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른 손으로 허공에 비전 마력의 실을 엮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가 책을 내려다보며 짚는 주문은 엄브릭에게 완전히 낯선 언어였지만…… 이상하게도 의미가 또렷하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평범하던 공기가 산산이 깨졌다. 다르칸의 주문이 고리를 그리더니, 끝없이 뒤틀린 형태로 꼬이다가 안쪽으로 붕괴하며 어둠보다 깊은 한 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형상은 엄브릭의 눈을 사로잡았다. 지금껏 본 어떤 것과도 다른 마력의 흐름이었다.

“저건…….” 루마스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음절마다 공포가 스며 있었다. “설마 자네…….”

다르칸이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보여주지. 바로 공허야.”

“공허.” 루마스가 날카롭게 내뱉었다. “그건 금지된—”



“그렇게 재미없는 소리 하지 마, 루마스. 완벽하게.....” 다르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먹물 같은 검은 마력으로 이루어진 손이 조그만 차원문 속에서 훌러나온 것이다. 다르칸이 뭐라 외쳤지만, 엔브릭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다른 한 손이 더 튀어나와 차원문을 벌리고, 그 틈새로 눈이 번뜩였다.

“닫아!” 루마스가 다르칸에게 외쳤다.

다르칸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기색이 싹 사라졌다. 턱에는 힘이 들어갔고, 창백한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알겠어.” 다르칸이 순순히 루마스의 말을 듣는다는 건, 공포가 이미 공황으로 변했다는 뜻이었다. 다르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다른 손짓을 시도했지만..... “말을 안 들어!”

그사이 괴물은 몸을 비틀며 더 나오려고 했고, 차가운 공허의 기운이 방 안을 휩쓸었다. 루마스는 손에 빛나는 불길을 모아 괴물에게 날렸다. 하지만, 외려 괴물의 시선을 끌 뿐이었다.

엔브릭은 전투 마법 실력이 루마스나 다르칸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내가 막을게!” 엔브릭이 다르칸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다르칸이 어둠의 화살을 피해 몸을 숙였다.

“어서! 루마스를 도와!”

공허의 존재가 이 세계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공간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밀려왔다. 어둠이 공기를 태우며 퍼져나갔다. 다르칸은 익숙한 냉기 주문의 서두를 더듬거리다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엔브릭은 차원문을 만든 마법에 집중했다. 이제 차원문은 스스로 유지되는 소용돌이가 되어, 연결된 차원으로부터 주변의 마력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구조를 보긴 처음이었지만, 그 복잡한 짜임을 연구할 시간은 없었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불꽃이 튀고 얼음 파편이 훌날렸다. 루마스와 다르칸이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엔브릭의 정신은 오직 차원문의 형태와 그것을 어떻게 해체할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탈출한 공허의 존재, 그리고 차원문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포효하는 마력의 소용돌이. ‘이 둘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저 넘치는 마력을 추방 마법의 연료로 삼을 수 있을 텐데.....’ 거의 본능에 이끌리듯, 엔브릭은 차원문을 유지하던 마법에 두 번째 주문을 엮기 시작했다. 엔브릭은 공허로 물든 공간과 아제로스를 이어주는 단단한 매듭을 찾아냈다. 섬세하면서도, 건드리면 쉽게 풀릴 만큼 위태로운 것이었다. 엔브릭은 의지를 모아 매듭을 향해 손을 뻗었고.....

공허라 불리는 것이 이렇게
마력과 잠재력으로 들끓고
요동친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차가운 무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별의 심장처럼
압축된 덩어리..... 믿기 어려울
만큼 응축된 ‘전체’였다.

공허라 불리는 것이 이렇게 마력과 잠재력으로 들끓고 요동친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차가운 무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별의 심장처럼 압축된 덩어리..... 믿기 어려울 만큼 응축된 '전체'였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식이 잠들어 있다. 왜 한 길만 골라야 하지? 공허는 달라란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길을 동시에 걸으며, 만약 같은 의문 따윈 품지 않아도 되는 기회 말이다.' 저 너머 소용돌이치는 어둠의 가능성을 온전히 탐구할 수 있다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롬마스와 다르칸은 결코 가만히 안 있겠지. 날 작고 한정된 틀에 가두려 들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없앤다면.....'

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엄브릭은 등골을 타고 한기가 내리꽂히는 걸 느꼈다. 누군가를, 특히 자신이 아끼는 친구들을 죽인다는 발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럼에도 그 생각이 불러온 어둠의 힘을 막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손끝에는 피가 끈적였고, 그 위에서 무수한 가능성이 춤추고 있었다.

'안 돼.'

엄브릭은 공허와 숙소를 잇는 연결을 단칼에 끊었다. 즉흥적으로 만든 주문은 완벽히 작동하는 듯했다. 차원문이 붕괴하며, 번쩍이는 마력의 섬광이 그물로 변해 괴물을 옮아했다. 다르칸과 루마스를 견제하느라 방심한 괴물은 이런 공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괴물은 우렁찬 괴성을 내지르며 바늘구멍만큼 줄어든 차원문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몸은 엿가락처럼 늘어나고 비틀리며 찢겨 들어갔다. 잠시 후, 차원문이 완전히 닫혔다. 그리고 엄브릭은 자신이 계산을 크게 잘못했음을 깨달았다. 괴물을 봉인하는 데 이렇게 적은 마력만 들 줄은 몰랐던 것이다. 반동이 몰려오며 그는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았다. 입안에는 피와 찌릿찌릿한 맛이 섞였고, 귀는 몇 번이나 '펑' 소리가 터진 뒤에야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엄브릭!" 엄브릭은 루마스가 쿵 소리와 함께 무릎을 끓으며 내려앉는 진동을 느꼈다.

"부러진 데는 없어." 엄브릭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중얼거렸다. "아마..... 아마도." 거친 성격답지 않게 신중한 손길로 루마스가 엄브릭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제야 엄브릭은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음. 거의 안 부러졌다고 해야겠군."

롬마스는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다르칸을 노려봤다. "자네, 우리 셋 다 죽일 뻔한 거 알아? 명청하기는."

다르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이게 무슨 발견인지 알아? 공허 관문이야.....”

“추방당하고 싶어?!” 루마스가 으르렁거렸다. “어찌 이런 명청한 짓을.....”

“진짜 명청한 건 눈뜬장님인 자네 아닌가.....”

엄브릭은 이대로 두면 일만 커질 거라는 걸 직감했다. 다르칸은 발견의 열기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희열에 취해 있었고, 루마스는..... 루마스는 분노 속에 감춰진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일은 나중에.....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편이 나으리라. 곧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다. “루마스, 손수건 좀.” 엄브릭이 끼어들었다.

“뭐..... 아.” 루마스가 고개를 돌리며 그를 보았다. 표정이 단숨에 식었고, 차가운 엄숙함으로 닫혀 갔다. 그는 로브 소매 속에서 흰색 리넨 손수건을 꺼냈다.

엄브릭은 피가 줄줄 흐르는 코 덕분에 잠깐의 여유를 얻었다. “다르칸, 연금술사한테 가서 치유 물약 좀 구해와 줘. 우리 셋 중엔 자네가 제일 잘 보였잖아.”

다르칸은 무언가 반박하려다 관두고는 말을 삼켰다. “알겠네.” 그는 투덜거리며 나갔다. 이 모든 소동의 원흉이 된 곰팡이 편 고서를 한쪽 팔에 끼운 채로.

엄브릭은 육신거리는 코에 손수건을 대고, 난장판이 된 루마스의 가구들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조각난 가구들을 하나씩 공중으로 띄워,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 조립되도록 마법을 걸었다.

“앉게. 내 가구니까.” 루마스가 말했다.

“멀쩡해지면 앉지. 게다가 이 사달에 나도 한몫했잖아.”

루마스는 코웃음을 치더니, 보관장에서 빗자루 하나를 꺼내 바닥의 분필을 쓸어내도록 마법을 걸었다. “그게 다르칸의 ‘멋진 깜짝선물’일 줄 알았으면.....”

“그럼 재미는 경험을 놓쳤겠지.” 엄브릭이 말했다.

“재미라.”

의자 하나가 그나마 앉을 만해 보였다. 엄브릭은 의자를 끌어다 방 안의 큰 창가 앞으로 옮겼다. 손짓 하나에 창이 부드럽게 열렸다. 엄브릭은 조심스럽게 앉아, 낮의 달라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법으로 걸러졌지만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 정말 다르칸이 둘을 깨워 끌어낸 뒤로 시간이 이것밖에 안 흘렀단 말인가? 엄브릭은 시선을 돌려 잔디밭 위에서 수업 중인 수습생 무리를 바라봤다. 서툴게 냉기 주문을 시험 중인 세 명의 청년, 그리고 거리를 따라 이동하는 외교 사절단의 행렬까지. 한때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였다.

롬마스는 빼걱거리는 의자를 끌어다 엄브릭 옆에 앉았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는 눈썹 한쪽을 치켜 올리며 엄브릭을 흘끗 바라봤다.

엄브릭도 시선을 맞추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꽤..... 배울 게 많은 경험이었지.” 말을 내뱉고 나니, 그 말이 지나치게 밋밋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의 엄브릭은 머릿속이 뒤풀썩이라 그 이상 정리할 수가 없었다.

롬마스가 콧방귀를 뀌었다 “사제들이 공허에 대해 설교할 때 나만 귀 기울였던 모양이군. 끝없는 허기,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비틀어 광기와 살인으로 몰아가는 힘이라 했지.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자네가 본 건 그게 다인가?”

“그 괴물이 날 죽이려 드는 것 말고 더 볼 게 있었나?”

엄브릭은 잠시 망설였다. 그가 공허에 손을 댔을 때 느꼈던 감각, 끝없는 어둠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말할까. 곧이어 정신에 스며들었던 그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걸 이야기한다면, 봄마스는 하나의 화두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자신을 사제들에게 끌고 갈 이유로 삼을까. “물론 아니지.” 봄마스가 의심을 담아 눈을 가늘게 뜨자, 엄브릭은 급히 덧붙였다. “다른 무언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좀 품었었거든.”

롬마스는 파리라도 쫓듯 손을 휘저으며 주제를 내던졌다. “다르칸의 행동을 6인의 의회에 보고해야겠어.”

엄브릭은 친구 하나, 아니 둘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볼게.”

“그걸로는 부족해.”

“자네, 다르칸을 달라란에서 추방시키겠다는 건가?”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의회가 공허 관문 실험을 그 정도로 문제 삼으면 우리도 무사하긴 힘들 거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시겠지.” 하지만 봄마스의 말에는 확신이 실려 있지 않았다.

“굳이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

롬마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빠져나가고, 두려움의 잔향만이 남았다. “다르칸이 자네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건 엄브릭 본인도, 봄마스도 믿지 못할 거짓말이 되리라. “최선을 다해볼게. 적어도 자네는 휘말리지 않게 하겠어.”

롬마스의 미간이 좁혀졌다. “나만?”

“우리 둘 다.” 엄브릭이 고개를 저었다. “난 다른 걸 연구하고 싶어. 내 얼굴에 덜 해로운 분야로 말이지.”

“실버문의 독신 귀족들이 통곡하겠군.” 루마스가 건조하게 말했다. “엄브릭.”

“왜?”

“다시는 다르칸의 기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루마스는 손짓으로 방 안의 부서진 가구들을 바라봤다.

엄브릭은 다시금 그때 느꼈던 무한한 가능성의 심연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건 시야를 좁히기보다, 더 넓히라 속삭이고 있었다. ‘날 작고 한정된 틀에 가두려 들 거야.’ 그 생각이 스치자, 손가락 끝에 묻은 피가 굳어 가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엄브릭은 간절히 바랐다. 다르칸처럼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배움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루마스처럼 자신을 탁월하게 이끄는 확고한 신념이 안에도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하고. 그 신념은 그를 뛰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히 바라보게 해주는 확신의 근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엄브릭에게 그런 불꽃은 없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코의 통증이 생각조차 흐리게 만들었다. 추방이나 파문, 혹은 그보다 더한 결과. 그건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잔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지의 가능성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실버문이 필요로 하는 건 루마스 같은 굳건한 기둥과 다르칸 같은 날카로운 지성이지, 끝없는 의문 위에 떠 있는 불확실함 따위는 아니다. ‘왜 여기 있는지 잊지 마라.’ 배움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봉사의 이상이다. 머지않아 그는 마법사가 되어 고향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그건 세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며 밤마다 함께 그려온, 손에 잡힐 듯 선명한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 이상 더 바랄 것은 없었다.

엄브릭은 루마스를 바라보았다. 친구의 엄숙한 눈빛 속에는 아직 걱정의 빛이 남아 있었다. 엄브릭은 마땅히 더 쉽게, 더 빨리 해야 했던 말을 입에 올렸다. “약속할게.”



엄브릭은 다시금 그때 느꼈던 무한한 가능성의 심연을 떠올렸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건 시야를 좁히기보다, 더 넓히라 속삭이고 있었다. '날 작고 한정된 틀에 가두려 들 거야.' 그 생각이 스치자, 손가락 끝에 묻은 피가 굳어 가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엄브릭은 간절히 바랐다.

엄브릭은 깨진 포장돌에 발을 걸려 욕을 내뱉었다. 음식과 수면, 특히 태양샘의 마력이 빠져나간 탓에 허약해진 그의 몸은 예전 같았으면 멀쩡히 자세를 바로잡았을 힘과 균형을 잃었다. 그는 굴러떨어져 무릎과 손바닥이 충격에 얼얼했지만, 온통 시선은 자신이 넘어질 때 일부를 받아주었던 갈라진 가죽 여행 가방에만 꽂혀 있었다. 허겁지겁 집어 들자 가방은 멀쩡해 보였다. 둘러보니 길거리는 황폐했고, 버려진 쓰레기로 절반이 막혀 있었다. 들리는 건 멀리서 흩어지는 듯한 흐느낌과, 바람에 덜컹거리는 채 창문 덧문이 요동치는 소리뿐이었다.

엄브릭은 터질 듯한 웃음을 억눌렀다. 실버문은 너덜너덜한 잔해 같았고, 스컬지의 침공으로 뒤엉킨 오물은 아직도 도시에 남아 있었다. 태양샘이 공급하는 마력이 끊겨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유령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도둑처럼 허겁지겁 달아나는 그를 볼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숙소로 비틀거리며 걸을 때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날카로운 현기증에 어지러웠고, 기운이 달렸다. 현관문을 쟁 닫고 걸쇠를 걸기 전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쳐서 한쪽 탁자 위에 짐을 내려놓고, 바로 옆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그는 가방을 바라보고 눈을 감았다. “숨 좀 고르면 널 태워버릴 거야,” 엄브릭이 가방에게 말했다. 가방이 날카롭고 조롱 섞인 웃음을 토해낼 것만 같았다.

‘금단 증상’이 드디어 날 광기로 밀어 넣었군! 열병 같은 꿈은 엄브릭은 달라란에서 보낸 좋았던 시절로 데려다놓았다. 그때는 루마스와 함께 긴 오후를 커피 가게에서 공부하며 보내곤 했고, 다르칸은 늘 새롭고 어리석은 실험을 들고 그들을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뒤 그의 어지러운 생각 속으로 떠오른 건 다른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은 그를 도시 반대편으로 이끌어, 한때 치즈 가게였지만 이제는 폐허가 된 곳까지 가게 했고..... 그 안쪽에는 다르칸이 몇 년 전 보여주었던 비밀 연구실이 있었다.

엄브릭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대체 내가 뭘 기대하고 왔지? 고통, 죄책감, 공포 말고.’ 다르칸은 언제나 달라란의 규율 따위는 성가신 사소한 것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시절의 그마저도, 리치 왕을 위해 쿠엘탈라스의 수호물을 허무는 괴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버문에 스컬지를 풀어놓고, 태양샘을 되돌릴 수 없는 타락에 빠뜨린 그 일을 떠올리는 건 뼈에 맴이 든 곳을 누르는 듯 쓰라렸다. 그 사건은 엄브릭의 동족을 광기와 부패로, 혹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넣은 징벌이었다.

다르칸의 비밀 연구실은 폐허 그 자체였다. 그 잔해가 스컬지의 짓인지, 다르칸 자신의 소행인지, 아니면 다르칸을 증오한 마법사들이 남은 흔적마저 지우려 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엠브릭은 그때 돌아서야 했다. 발목까지 쌓인 그을린 종잇조각 더미 속에서 몇 발짝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 그 조각들에는 다르칸의 필체가 남아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진 단어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엠브릭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 가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물건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가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를 유인하기 위한 뭇이었을지도 모른다.

‘롬매스가 여기에 있었으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 엠브릭은 비웃음이 새어 나왔다. 루매스는 지금 아웃랜드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루매스가 여기 있었다면, 둘은 블러드 엘프를 위협하는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을 테고, 엠브릭은 저주받은 지하실에 내려가지도, 그 못지않게 불길한 이 가방을 자신의 방에 들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롬매스라면 널 태워버리라고 했겠지.” 엠브릭이 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백번 옳은 말이고.” 엠브릭은 소파 등받이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지러움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가방을 벽난로로 가져가 불 속에 던질 참이었다. 하지만 그때, 덮개가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넘어질 때 잠금장치가 부서진 모양이었다. ‘상관없어. 그냥 태워버려.’

루매스처럼 신념이 강했다면, 진작 불길에 던져 넣었으리라. 엠브릭은 궁금해졌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바로 그 호기심이야말로 엠브릭으로 하여금 달라란에서 학문을 닦게 만들고, 마법학자의 길을 걷게 한 기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를 잊고 태양샘의 마력이 끊겨 빠마디까지 비워진 지금도, 엠브릭의 마지막 남은 본능은 단 하나였다. ‘알고 싶다.’

‘지식과 힘은 우리가 다루는 도구일까,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일까? 다르칸은 금지된 힘에 사로잡힌 희생자였을까? 어리석게도 그 어둠의 길로 한 발을 내디딘 탓에 괴물로 타락한 존재?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괴물이 되어, 오직 자신의 야망만을 섬긴 걸까?’

전자가 훨씬 위안이 됐다. 그랬다면 그 거대한 악은 지진처럼 불가피한 일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건 아팠다. 죄책감을 더 짙어지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내가 루매스를 택하지 않고 다르칸을 택했다면…… 아니, 셋의 우정을

바로 그 호기심이야말로
엄브릭으로 하여금 달라란에서
학문을 닦게 만들고, 마법학자의
길을 걷게 한 기질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친구를 잃고 태양샘의
마력이 끊겨 뼈마디까지 비워진
지금도, 엄브릭의 마지막 남은
본능은 단 하나였다. ‘알고 싶다.’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아니. 어쩌면 그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르칸의 삶을 내가 대신 선택한 건 아니었지.’ 엠브릭은 이마를 벽난로에 기댔다. 불길이 경쾌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대리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가방의 덮개를 젖혔다. 적어도 불태우기 전에, 무엇을 태우는지는 알고 싶었다.

가방 깊은 곳에서 고서 한 모서리가 비죽 튀어나왔다. 엠브릭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책을 꺼내며 숨을 삼켰다. 딱 한 번 보긴 했지만, 오래전 숙취로 정신이 가물가물하던 어느 날, 다르칸이 코앞에 들이밀었던 그 표지가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다. 다르칸이 학창 시절의 유물 중 하나로 간직해온 물건이라니,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한때 느꼈던 공허의 감각이, 끝없는 가능성과 힘의 깊이가…… 차가운 바다가 다시 밀려와 숨이 막혔다.

지금 이 느린 죽음을 초래한 것이 바로 그 압도적인 힘의 부재 때문 아닌가?

다시는 다르칸의 기행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때 그는 룸매스에게 맹세했었다. 엠브릭은 손끝으로 고서 표지를 움켜쥐었다. 거칠게 갈라진 가죽이 손톱 밑으로 부서졌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누구를 위한 약속이지? 모두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엠브릭은 책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방의 내용물을 모두 쓸어냈다. 밖으로 굴러 나온 건 동전 몇닢, 모서리가 닳은 카드 반 둑음, 부러진 깃펜, 그리고 부스러기로 변한 오래된 과자뿐이었다. 남은 건 고서 하나뿐이었다. 엠브릭은 세차게 책을 펼쳤다. 이상한 일이었다. 다르칸은 분명 강령술에 깊이 심취해 있었는데, 왜 이 책을 간직했던 걸까? 어쩌면 다르킨이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기 위한 기념품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백마다 흩어진 다르칸 특유의 조잡한 필체가 그 생각을 무너뜨렸다. 완성하지 못한 계산식, ‘텔로그러스’라 불리는 장소를 검게 밑줄 친 몇몇 구절들. 엠브릭은 이 문장들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자꾸만 멈칫거렸다. ‘이 주제에 더 파고든 기록이 어딘가 남아 있을까? 그렇다 해도, 연구실은 이미 폐허야. 지금은 존재하지 않겠지.’ 쓸모없는 생각이었다. 엠브릭은 고개를 저었다. 소득도 없을 공산이 큰 탐색보단, 지금은 이 책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먼저 봐야 했다. 엠브릭은 고서의 첫 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단어들이 음악처럼 흐르며 머릿속에서 질서 있게 엮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문장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엠브릭을 이끌었다. 공허 관문을 만드는 원리였다.

관문은 본디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지나가기 위한 길이다. 하지만 공허가 블러드 엘프들의 구원이 될 수 있다면, 관문을 타고 훌러야 할 것은 괴물이 아니라 마력이다. 그에게 필요한 건 관문이 아니라 도관이었다.

엄브릭은 분필을 들고 바닥에 새로운 비전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업을 계속하며 기호를 수정하고 방정식을 덧붙였다. 가끔은 잠이 들어 볼을 책에 기대고, 잉크와 분필 맛이 입안에 배n 채로 깨어나기도 했다. 며칠이 흘렀는지, 혹은 몇 주였는지 조차 모를 만큼 시간이 지난 끝에 엄브릭은 다시 도식을 따라가며 빈틈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지맥에서 실처럼 마력을 끌어와 주문을 읊었다. 자신이 내뱉는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절박한 본능만이 앞섰다.

이번엔 어떤 고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눈에 보이기보단, 그저 느껴지는 것이 전부였다. 손끝으로 끝없는 어둠의 바다, 무한하게 떨어진 심연을 건드린 듯한 감각. 뺏속까지 울리는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엄브릭의 몸을 관통하며 피와 골수로, 그리고 폐와 심장을 지나 찰나의 호흡 사이에 뇌로 쏟아져 들어왔다.

순간, 엄브릭은 모든 것을 보았다. 단지 아제로스 전역이나, 아제로스가 자리한 끝없는 어둠 그 너머가 아니라..... 현실의 틈새 사이에 숨어 있는 것들, 끝없는 허무와 무한한 창조가 서로를 반사하고 부정하며 충돌하는 장관이었다.

그때, 어떤 어둡고 의도를 품은 존재가 모든 것과 자신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마치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처럼. 엄브릭은 내심 암도적인 흐름이 잠시 잦아든 것이 다행이라 느꼈다. 그러나 곧, 공허처럼 원초적이고 끝없는 힘의 폭류조차 틀어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섬뜩한 공포가 몰려왔다. 여전히 무수한 가능성이 엄브릭을 덮쳤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대담하고, 더 현명하게, 더 영리하게 처신하면 미래의 환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엄브릭은 신성 마법학자, 실버문의 구세주로서 군림할 수도 있었다. 공허의 선물로 백성을 구원하고 사랑을 받았으리라. 백성들은 한때 태양샘에 그랬듯, 이제는 엄브릭에게서 위안을 구했다. 무릎을 꿇은 채 찬송을 올리며, 공허 마력을 한 방울씩 흘려 자신들을 길들이는 와중에도 말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모두를 구하는 것.’ 그러나 그 미래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얹지로 신은 듯한 이질감으로 다가왔다. 엄브릭이 원한 것은 동족을 굶주림에서 해방하는 것이지, 그 굶주림으로 다시 속박하는 게 아니었다. ‘이건 다르칸의 꿈이지, 내 꿈이 아냐. 그 친구가 손쉽게 힘을 얻을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해서 다행이군. 만에 하나 이걸 알았으면..... 무한의 한 조각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누가 죽음 같은 걸 선택할까?

또 하나의 가능성이 그림자의 장막을 비집고 스며들었다. 엄브릭은 캘타스 선스트라이더 곁에서 조언을 올리는 수석 고문, 왕좌 뒤의 그림자 같은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캘타스는 차갑고 어두운 공허의 샘을 품은 왕좌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분명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루마스는 어디에 있는가?

‘죽었겠지. 내 그늘 아래 놓이길 참지 못했을 테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절대 가만두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그가 아는 루마스답지 않았다. 투덜대고 고집스럽긴 해도 언제나 충성과 책임으로 움직이던 사람. 그게 루마스였다.

아니. 엄브릭은 깨달았다.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의미에서 그 존재는 그의 정신을 지켜주었다. 어리석게도 ‘공허’라 이름 붙인 만물 사이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엄브릭의 손에 닿은 가능성은, 그 존재를 통과해 걸러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 존재가 내민 제안이었다. 길들고 조율된 공허. 이 힘으로 블러드 엘프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안 돼!'

그다음으로 스며든 생각은 다르칸의 목소리였다. 그 말 하나하나가 조롱 섞인 논리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넌 기꺼이 나를, 네 소중한 친구를 실버문의 안녕을 위해 희생시켰지. 모든 블러드 엘프의 생존과 비교하면, 한 명의 죽음이 뭐 그리 대수겠어? 그리고 루마스라면 내 말에 동의했을 거야. 이빨이 갈려 부서질 때까지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말이지.’ 엄브릭은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림자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다르칸의 잔영이 속삭인 것인지조차.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엄브릭은 애초에 도덕 철학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평소에도 논쟁을 싫어했고, 달라란 곳곳에서 벌어지던 활발한 토론에도 좀처럼 끼어들지 않았다. 애초에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정당화란 필요 없는 일이었다.

‘아니. 그런 피 묻은 편의는 거부한다. 가능성이 진정 무한한 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고도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엄브릭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비명으로 갈라진 목이 타들어 갔고, 몸의 감각과 고통이 하나씩 되돌아왔다.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손끝은 멀고 저릿했으며, 여전히 풀려나지 않은 비전의 실 가닥들이

무한의 한 조각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누가 죽음 같은 걸
선택할까?’

얽혀 있었다. 엠브릭은 마치 수습생이 처음 주문을 배우던 때처럼 서투르게 손을 움직여..... 주문을 끊어냈다.

어둠의 존재가 사라졌다. 가능성의 급류도 함께 사라졌다. 허무함만이 남은 엠브릭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순간이었는지, 한 시간이었는지, 혹은 한평생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마 위에 축축한 천이 내려앉았다. 그 서늘한 감촉은 곧 이어진 날카로운 명령과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일어나, 엠브릭. 네 연극에 맞춰줄 시간은 없어.”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목소리.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정과 유머까지. 백 년이 지나 죽었다 해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엠브릭은 온 힘을 쥐어짜 눈을 뜨다. 그 위로 루마스가 서 있었다. 순간, 이게 죽어가는 와중에 보는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루마스는 지난 몇 달 동안 본 그 어떤 신도레이보다 건강해 보였다. 다만 눈동자만은 불길한 녹빛으로 타올랐다. “내가 죽은 건가?”

루마스가 콧방귀를 뀌었다 “죽고 나서 내 꾸중을 들을 정도면 인생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방증 아닐까?”

엠브릭은 갑작스레 불안한 기운이 치밀며, 자신이 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언제 소파에 누운 거지?’ 하지만, 루마스가 엠브릭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단단히 눌렀다. “찾았어, 루마스. 해답을!”

루마스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그는 방의 상태를 확인하자 눈이 커졌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마력 있잖아. 지식. 무한한 지식. 그게 우릴 구원할 거야. 이건 도관이야. 다른칸의 관문이랑은 달라.”

루마스는 바닥의 비전 마법진과 지워진 분필식,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고서를 바라보았다. 루마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다. 그가 엠브릭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목소리는 낮았고, 분노로 거칠게 갈라졌다. “약속까지 했잖아.”

“우린 죽어가고 있어.”

“난 널 믿었어!” 루마스가 외쳤다. “쿠엘탈라스를 지켜보는 네가 있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와서 보게 된 광경이.....” 루마스는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얼굴로 손을 휘둘러, 종이와 분필로 뒤덮인 엠브릭의 응접실을 가리켰다. “이 더러운 걸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긴 거냐?” 이런 걸 읽으려고? 이딴 건.....” 루마스가 책을 낚아채 들어 올렸다. “배신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다! 나를, 너를, 모두를 배신하고, 망자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학살하게 만든 자! 태양샘을 더럽히고, 우리 종족을 굽주림과 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책이라고!”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전율이 잇따라 엠브릭을 덮쳤다. 루마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먹처럼 내리치며, 혼란스러운 생각이 어떤 질서를 갖게 했다. “나, 나는 다르칸처럼 동족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루마스, 자네는 날 알잖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난 명예나 힘 따위엔 관심 없어.” 공허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해도. “나는 동족을 멸망에서 구하고 싶을 뿐이야.”

루마스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분노를 억눌렀다. “태양샘의 상실로 인한 광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다보더니, 난로에 던졌다. 엠브릭은 장작에 부딪히는 소리, 불길이 치솟는 소리에 움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이 자신에게 전할 것은 이미 다 배웠다는 걸 알고 있었다. 루마스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캘타스 님이 해결책을 찾으셨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첫 단계를 알리기 위해서야. 우리에게 필요한 마력을…… 끌어올 방법이 있어.”

“어디에서?”

“지금으로선 유물이나, 쓰이지 않는 물건들 같은 곳에서.”

“그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 엠브릭이 지적했다.

“영원하다고 한 적도 없어. 대신 우리가 힘을 되찾는 동안, 캘타스 님이 우리가 쓸 더 강력한 힘의 원천을 확보하고 계셔. 그러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 왕자님이 우릴 구원하실 거야. 그분을 믿어.”

루마스가 캘타스란 이름을 언급했을 때, 위안으로 와닿아야 정상일 터였다. 달라란에서 모두가 학생이던 시절 캘타스를 멀리서만 봤지만, 그는 아나스테리안 국왕의 아들이었다. 그럼에도 엠브릭은, 자신들 모두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양샘이 영원히 존재할 기반처럼 여겼던 그때를, 그것이 사라졌을 때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자신들을.

그리고 생각했다. ‘한때 나도 다르칸을 믿었지.’ “이젠 우리 운명을 하나의 구원자에게 맡기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 태양샘이든, 캘타스 님이든 말이야.”

루마스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자네도 우리와 여정을 함께했다면 이해했을 거야.” 루마스가 손등을 들어 엠브릭의 뺨에 잠시 갖다 댔다. “열이 있군. 정신 나간 짓은 그만둬, 엠브릭. 지금이라면 내가 덮을 수 있어.”

‘이상하게 머리가 너무 맑아.’ 엠브릭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루마스가 제시한 선택지를 분명히 알아보았다. 지금 이 문제를 덮어두면, 루마스는 단순한 금단

“이 더러운 걸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긴 거냐?”
이런 걸 읽으려고? 이딴 건.....”
롬매스가 책을 낚아채 들어
올렸다. “배신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다! 나를, 너를,
모두를 배신하고, 망자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학살하게 만든
자! 태양샘을 더럽히고, 우리
종족을 짚주림과 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책이라고!”

증상이나 병으로 여길 것이고, 모든 일은 잊힐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법을 최우선으로 믿는 루마스는, 타협하지 않으며, 다르칸의 배신으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는 주문파괴자를 보낼 것이다. 엠브릭은 두통을 견디며 힘겹게 눈을 감았다. 지금 벽창호 같은 루마스를 설득할 힘이 없었다. 지식은 너무 얕았고, 공허에 대한 이해는 아직 지나치게 미숙했다. ‘배우겠어. 이 분야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루마스도 내 말을 듣게 되겠지.’

이번에는 루마스가 일어나는 걸 막지 않았다. 엠브릭은 이마 위의 천을 치웠다. “좋아.” 엠브릭이 말했다. “자네가 가져온 해결책을 듣지.”



‘곧 생일이군. 혹시 이게 깜짝 연회인가.’ 엠브릭은 씁쓸한 유머를 떠올리며 의회 회의실 문을 손마디로 두드렸다.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밀어낼 수 있다면, 그런 농담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는 방금 태양샘 경비병들에게서 입장을 거부당한 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이었다. 이제 태양샘은 회복되어 안정된 상태였으니, 동족 중 한 마법학자가, 그것도 엠브릭 같은 지위를 가진 이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엠브릭은 이 착오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로르테마르에게 가야 할까? 그러던 그때, 한 전령이 다가와 마법학자 의회 소집장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엠브릭에게 그런 회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엠브릭은 안의 광경을 확인했다. 실버문에 머무는 거의 모든 마법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같이 전보다 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마엘라가 있었다. 손은 묶여 있었고, 주문파괴자 갑옷을 벗은 채라 그런지 낯설고 왜소해 보였다. 그리고 루마스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으로 엠브릭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엠브릭은 마엘라가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계획적인 ‘깜짝선물’이 분명했다. “소환장을 받았네.”

“이 여인은.....” 마법학자 더스크워더가 말했다. “암흑 마법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지.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종류의 암흑 마법 말입니까?” 엠브릭이 물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다.

“공허의 의식이었어.” 루마스가 말했다.

엄브릭은 자신의 선택지를 명확히 보았다. 마엘라를 모르는 척하고 혼자 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동료 마법학자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표적을 스스로 내주든지. 전자를 택해도 마엘라는 이해할 것이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태양샘이 다시 타오른 뒤, 자신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법학자가 금지한 연구를 이어 가는데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공포 대신 피로가 가슴을 채웠다. 엄브릭은 이제 거짓말도, 숨기는 일도, 마땅한 지식의 탐구를 죄악시하는 연극도 지겨웠다. 그리고 태양샘의 신성함을 외치며 위선을 일삼는 다른 마법학자들의 모습에도 진저리가 났다. 그 태양샘이란 건, 결국 고통받는 나루의 심장에서 얻어낸 두 번째 기회에 불과하지 않은가. 엄브릭은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 소매 속으로 감쌌다. “그렇다면 저 역시 재판을 받겠습니다. 마엘라를 가르친 건 저니까요.”

모인 마법학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엄브릭의 시선은 오직 루마스에게만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침울했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다. 혼란을 뚫고 방 안을 가쁜 것은 루마스의 목소리였다. 그의 말은 냉정하고 명확했다. “태양샘이 복원된 지금, 그런 의식이 무슨 목적을 가질 수 있지?”

엄브릭은 이날을 대비해 수없이 논리를 다듬어왔다. 논쟁에서 쓸 수 있는 문장, 설득력 있는 비유, 그리고 의회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납득시킬 완벽한 논거까지 준비했었다. 그러나 루마스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모든 말이 재처럼 흩어졌다. “자네도 나만큼 사실을 잘 알잖아. 태양샘은 두 번이나 오염되었고, 한 번은 완전히 파괴되었지. 그리고 다시 복원할 때는 캘타스의 명령으로 고문했던 나루의 심장이 필요했어. 같은 일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같은 일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한다.” 루마스는 단어 하나하나를 짓이기듯 내뱉었다. “도시 한가운데서 또 다른 독사를 키우는 것처럼? 다르칸은 우리를 멸망 직전으로 내몰았어. 캘타스 역시 우릴 파멸시킬 뻔했지.”

다른 마법학자 하나가 덧붙였다. 엄브릭은 누가 말했는지조차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루마스에게, 눈빛 속에서 다투는 분노와 절망에만 불들려 있었다. “자네 같은 인물이 또 다른 폭군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겠지.”

“나는 정치적 영향력도, 명예도 바라지 않아. 그건 자네도 알잖아.” 엄브릭은 단호히 잘라 말했다. 루마스가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이

“그렇다면 저 역시 재판을
받겠습니다. 마엘라를 가르친
건 저니까요.”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나는 우리가 더 이상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몰리지 않게 하려는 거야. 우리 마법학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힘이란 그저 도구일 뿐이란 걸.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지. 그러니 우리 종족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자는 거야.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이게 엠브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논거였다. 원래라면 충분히 통했을 것이다. 학생 시절의 루마스였다면 통했을 것이다. 혹은 캘타스의 거짓된 희망을 들고 돌아왔을 때의 루마스였다면,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때 엠브릭이 말을 제대로 전할 수만 있었더라도 설득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루마스의 냉랭한 얼굴은, 엠브릭의 말이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구에 심취해 이미 타락한 모양이군. 태양샘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보지 못하다니. 자넨 오히려 태양샘을 다시 오염시킬 거야.”

“내 연구는 태양샘에 닿지도 않았고, 위험에 빠뜨릴 의도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 안정성 하나에만 의존할수록, 점점 더 편협하고 광신적으로 변해갈 게 걱정돼.”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엠브릭은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몇몇 마법학자들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방 안의 분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중에서도 루마스의 분노가 가장 컸다. “태양샘은 천 년 동안 우리를 지켜왔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토해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은 태양샘을 잊었을 때 찾아왔지.” 루마스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연구를 폐기하고, 추종자들을 해산하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마법학자 앞에서 맹세해.”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며 냉소가 번졌다. “그래야 약속을 지킬 테니.”

엠브릭은 그들을 오랜 세월 친구로 둑어온 정이 끊어질 듯 팽팽히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르칸과 캘타스의 배신이 루마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많은 이가 루마스를 냉담하다고 하지만, 엠브릭은 그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감춰왔는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부서졌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사람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루마스가 자신을, 나아가 동족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아니.” 엠브릭이 단호히 말했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겠어.”

루마스가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타격을 입은 듯한 표정이었다.

다른 마법학자들의 고함을 무시하고, 엠브릭은 루마스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미안하네, 오랜 친구여. 진심이야. 내가 마음이 단단해서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 이후의 일은 예정된 결말이었다. 엠브릭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놀란 채, 그저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비전 족쇄로 묶였고, 정식으로 마법학자의 칭호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끌려가 마법사 전용 감옥에 갇혔다. 그동안 의회는 이 사건을 설정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루마스는 엠브릭이 끌려 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차가운 고요가 감도는 감방 안에서, 엠브릭은 이게 자신의 최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목숨을 잃고, 제자들은 뿔뿔이 숨은 채,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순교로 마감하는 것.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공허는 줄곧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곧,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수가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적을지도 몰랐지만, 엠브릭은 이제서야 신념에 확신이 생겼다.

엠브릭은 더 깊은 자기 성찰로 빠져들기 전에 구원받았다. 루마스가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나타난 것이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물렸다. “우리끼리 이야기하겠다. 내가 다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이미 충분히 해쳤지만.’ 엠브릭은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 “사형 선고를 전하러 온 건가?”

루마스가 고개를 저었다. “로르테마르를 설득했어. 자네에게는 추방형이 내려질 거야. 자네와 추종자들 모두. 이 일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할 수 없겠지. 그럴 마음도 없고.”

‘이게 깨진 우정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그렇게 하겠네.”

루마스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며, 마치 말을 고르는 듯한 표정으로 엠브릭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변했어, 엠브릭. 예전엔 자네를 믿을 수 있었지.”

그 말이 아팠다. 이젠 어떤 말도 다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자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 우리가 보고, 겪고, 배운 모든 일 이후에도.” 세상을 뒤흔든 술한 승리와 재앙 속에서 루마스는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렸다. 어떠한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게 몇 번이고 다시 세워진 탑처럼.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다. 엠브릭은 공허 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굳이 탐색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결국 세상 모든 탑은 언젠가 자신보다 거센 폭풍을 만나 무너진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어. 교만을 부리지만 않으면.” 롬매스가 말했다.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엠브릭이 착각한 걸지도 모르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로르테마르는 나보다 훨씬 자비로운 사람이다.”

“됐어.” 엠브릭은 최대한 나긋하게 말했다.

“왜?” 롬매스가 물었다.

그리게, 왜 그럴까? 답은 쉽게 떠올랐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코 입 밖에 낸 적 없는 결론이었다. “이제야 내 길을 명확히 이해했어.” 비록 그 길이 자네에게서, 동족에게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해도 말이지. 우주는 너무도 거대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하. 공허로 가는 길이라.” 롬매스가 비웃음을 흘렸다.

엠브릭이 고개를 저었다. “자네도 쿠엘탈라스를 떠난 적 있잖아.”

“우리의 고향을 위해서였어. 동족을 위해서.”

“내 이유도 다르지 않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

“나는 타락한 힘을 좇으려고 모든 정도를 선뜻 버리지 않았지. 거짓말로 감추지도 않았고.” 롬매스의 입술이 비틀렸다. “우린 같지 않아.”

“내 인생에서 지금만큼 비참했던 적은 없어, 롬매스.” 엠브릭이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법이나 공허보다 훨씬 강하고, 동시에 훨씬 연약한 힘이 있어. 우릴 다음 재앙에서, 그리고 그다음 재앙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야..... 우정, 사랑, 유대 말이지. 정말 모르겠나?” ‘알 리 없겠지. 이 말을 하는 나조차 지금에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실버문을 지킬 거야. 그리고 자네도.”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

“자네는 언제나 우리 동족을 위해 할 일을 했잖아. 아무리 싫은 일이어도 말이지. 설령 아픈 일이더라도. 드디어 내가 자네를 보고 배웠으니, 자랑스럽게 생각해.”

롬매스는 잠시 고개를 숙여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운명을 평가하는 사람처럼. “하루를 주겠소. 늑장 부리면 강제로 추방될 줄 아시오.”

“이제야 내 길을 명확히
이해했어.” 비록 그 길이
자네에게서, 동족에게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해도 말이지.
우주는 너무도 거대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럼 일단 내보내 주시지요.”

롬마스가 비켜섰다. 엄브릭은 고향을 등지고 긴 걸음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봄마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저번에 전투에 나설 때보단 긴장을 덜 하시는 것 같네요.” 마엘라가 바위에 여유롭게 기대선 채 말했다. 저 자세는 실버문 시절, 의식이나 연구를 논의하던 때마다 보던 익숙한 모습이었다. 다만 이제 마엘라는 균열칼날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에는 렌도레이 특유의 보랏빛이 감돌고 있었다.

“이 방법이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까?” 엄브릭이 물으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앞에서는 공허 관문이 세워지고 있었다. 텔로그러스 균열에서 아제로스로 통하는 길을 여는 것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정교한 작업을 직접 맡고 싶은 충동으로 손끝이 근질거렸다. 하지만 엄브릭은 렌도레이 동료들에게 실습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다. 텔로그러스 균열의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은 소용돌이치는 마력과 가능성의 흐름으로 빛나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공허가 엄브릭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기 전에는 저 하늘이 어둡고, 익압적이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마엘라의 눈가가 연보랏빛으로 번뜩이며 미묘하게 치켜 올랐다. 깊은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는 안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케케묵은 앙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습니까.”

“당신이 틀리면 ‘케케묵은 앙금’이란 조화를 당신 관에 올리도록 하죠.”

마엘라가 엄브릭의 불안을 더 부추기지 않게 하려는 듯, 공허 관문이 어둡게 소용돌이치며 열렸다. “우리가 없는 동안 모두를 지켜 주십시오.”

“물론이죠. 대신..... 불구덩이에 뛰어들지나 말아요.”

엄브릭은 마지막 총고를 듣지 못한 척했다. 그는 대기 중이던 마법사와 균열방랑자들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텔로그러스 균열의 수호자 대부분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었다. 공허 관문을 통해 이동하는 감각은 지금껏 수 없이 사용해 온 비전 차원문과는 달랐다. 무한히 뒤섞인 가능성의 바다를 헤치며, 기묘하게도 정확한 해안에 닿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 매혹적인 마력의 흐름이 엠브릭을 내려놓은 곳은 잔디로 뒤덮인 부서진 돌길 위였다. 바로 윈드러너 마을이었다. 수년 전과 다름없이, 호드와 스컬지의 침공을 거쳐 폐허가 된 캡데기만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젠 언데드의 흔적도 사라지고, 평화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원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 균열방랑자가 엠브릭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보초 같습니다.”

“계획대로 됐네요. 이제 기다립시다.” ‘룸매스는 또 약속을 어겼다고 하겠지. 그리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야.’ 하지만 엠브릭은 다른 선택지를 볼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공허는 점쟁이의 수정구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가능성을 비추는 힘이며, 그 현재에서 갈라져 나온 미래들이 더 큰 무한으로 뻗어나간다. 그러나 베리사 윈드러너의 환영에 대해 들었을 때, 공허가 실버문을 삼키려 손을 뻗는 그 광경은 엠브릭이 직접 관측해 온 불안정한 경계와 완벽히 일치했다. 가능성의 직물이 뒤엉킨 매듭, 온 아제로스를 집어삼킬 위협이 되는 그것이 지금 이 근처에 있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머잖아 엠브릭은 차원문이 열릴 때 특유의 마력의 변화를 감지했다. 이내 여러 마리의 매타조가 달려오는 굉음이 점점 커졌다. 뒤에서 한 마법사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니, 영광이라고 말이다. 엠브릭은 그 말을 웃어넘기고 싶었지만, 속이 뒤틀릴 만큼 긴장한 탓에 겉으로 침착한 척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가 바라던 대로, 동시에 염려한 대로 행렬의 맨 앞에는 룸매스가 있었다. 매타조를 탄 그는 쇠막대기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군.’ 엠브릭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룸매스의 뒤에 늘어선 수많은 주문파괴자와 혈기사들이었다. ‘새로 사귄 친구는 없는 건가? 자기 몸 쟁기라고 잔소리해 줄 사람 말이야.’ 오랜 친구를 다시 본 기쁨은 룸매스의 얼굴에 서린 표정 하나로 완전히 사라졌다. 분노, 불만, 비난..... 이 모든 건 예상했지만, 그 속에 깃든 혐오감만은 예상 밖이었다.

‘이젠 나도 우리 모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이 실없는 우스갯소리 하나가 내면의 긴장을 풀어버렸다. 물론, 양쪽 사이에 감도는



살벌한 공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롬매스는 자신의 부대를 멈춰 세웠다. 그 병력은 엄브릭이 데려온 렌도레이의 수를 훨씬 능가했다. 봄매스의 손짓 한 번에 공기가 침소리로 가득 찼다. 병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뽑은 것이다.

“이제 네가 약속을 어긴다 해도 새삼 놀랍지 않아.”

“실버문에 다시 받아달라고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럴 날이 오길 바라지만. “오히려 실버문이 직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내 눈엔 위협이라곤 너희 족속밖에 안 보이는데.”

“베리사 윈드러너가 본 환영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엄브릭은 노골적인 도발을 무시하고 물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봄매스의 입가가 살짝 일그러졌지만, 다른 반응은 없었다. 엄브릭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 그리고 공허 속에서 자신이 관측한 현상들이 그 환영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빠르게 설명했다.

“너희 공허의 피조물들이, 공허가 실버문을 삼킬 거란 경고를 하러 왔다고?” 봄매스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 공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양샘의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요.” 엄브릭이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는 힘을 다루지, 그 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다른 어둠의 침식은 보이지 않는군. 네가 고의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잘아타스는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너희가 그자의 타락에 이용당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봄매스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너희는 다시 우리 땅에 발을 들였다. 계속 머무르겠다면 목숨을 거두겠다. 떠나라.” 봄매스가 손을 들어 불씨 하나를 만들어냈다. 불씨는 번쩍이며 빠르게 커졌고, 그와 동시에 주문파괴자와 혈기사들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아직 돌격까진 아니었지만, 렌도레이를 몰아내려는 의도는 분명했다. 엄브릭은 손을 들어 자신의 동료들을 막았다. 그리고 봄매스의 냉혹한 얼굴에서 나아갈 길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는 옛 친구의 짹그린 미간을 보았고, 그의 입 모양을 읽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엄브릭은 숨을 내쉬며 공허의 잠재력을 끌어올렸다. 수많은 가능성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가 죽거나, 봄매스가 죽거나, 혹은 둘 다 명청하게 파멸하는 결말로 이어졌다. 엄브릭은 봄매스에게 분노할 수도 없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자, 엄브릭은 마음속에서 울리는 단 하나의 희미한 가능성에 손을 뻗었다. 그는 공허의 숨을 내뱉고, 오랫동안 몸에 밴 비전의 마법으로

롬매스는 자신의 부대를 멈춰
세웠다.

돌아갔다. 그리고 한 단어의 명령을 내뱉어 자신의 의지로 루마스의 주문에 맞섰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의 힘이 맞섰다. 루마스는 불덩이를 완성하기 위해 필사적인 기세로 마력을 밀어붙였고, 엄브릭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싸웠다. 엄브릭은 늘 역주문에 능했지만, 루마스는 순전한 의지력만으로 엄브릭을 몇 번이고 누른 적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물렸다. 둘은 침묵 속에서 싸웠다.

그리고 엄브릭은 루마스가 물러나는 것을 느꼈다.

주문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소리 없는 폭발음이 울렸다. 바람에 엄브릭의 머리칼이 휘날렸다. 렌도레이 마법사 중 한 명이 울음과 웃음 사이의 이상한 소리를 냈다.

엄브릭은 루마스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시선을 맞췄다. “전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루마스.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당신은 제가 내켜하지 않는 일을 시킬 사람이 아니니까요. 공허를 믿지 못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럴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래도 이번 한 번은 절 믿어 주십시오.”

“하.” 루마스가 말했다. “같은 일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한다더니…….”

엄브릭은 징그리며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제가 태양샘에 무슨 해를 끼쳤는지 말해 보십시오. 제가 실버문에 무슨 해를 끼쳤는지, 선고를 받아 떠났던 것 말고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나는 자네와 한 수많은 약속을 어겼고, 어쩌면 우리 둘 모두에게 남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절대 저지르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다시 널 믿는 게 실버문을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르지.”

누구에게 묻기에도 어려운 요구일 것이다, 특히 세 번이나 배신당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떠나는 게 정말 파멸을 부를 일이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루마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굳게 다물린 채 턱만 미세하게 움직였다. 엄브릭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루마스를 지키는 혈기사 중 가장 앞에 닿기 전까지. 혈기사의 검이 그의 목에 비스듬하게 닿았다. 엄브릭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눈썹 하나를 들어 루마스를 바라봤다. ‘많은 사람이 자네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 우린 둘 다 그게 진실이 아니란 걸 알지. 그렇게 깊이 상처받고도 버텨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지닌 거지. 부디, 한 번만 더 그 힘을 보여줘.’

제발.

‘많은 사람이 자네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하지만, 우린 둘
다 그게 진실이 아니란 걸 알지.
그렇게 깊이 상처받고도 버텨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지닌 거지. 부디, 한 번만
더 그 힘을 보여줘.’

롬매스는 조용한 간청을 느낀 것 같았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고,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엠브릭 앞의 혈기사가 검을 거두며 천천히 물러섰다. 그 움직임을 따라, 무기를 집어넣는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한 물결처럼 번져갔다.

“이번 일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루마스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엠브릭이 대답했다.

롬매스가 어깨를 넓게 펴다. “너희 중 누군가가 실버문 성내나 태양샘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즉결 처형될 것이다.”

그 말에 엠브릭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숨을 내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지만 손은 내밀지 않았다. “그게…….” ‘보고 싶었다. 정말 미안해.’ ‘상의할 게 많습니다.’

“그럴지도.” 루마스가 말했다. 루마스의 입술이 잠시 굳게 다물리며 짹그려졌다가, 소매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리넨 손수건이었다. 루마스는 말없이 엠브릭에게 내밀었다. 엠브릭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받았다. 루마스가 짧고 귀찮은 듯 코웃음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오랜 우정을 나누면서 엠브릭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기 목 옆을 가볍게 톡 치고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마.”

엠브릭은 손수건을 목에 대고서야 혈기사의 날카로운 검끝이 피부를 살짝 베고 지나간 자리를 느꼈다. 손수건을 잠시 떼어내자, 하얀 천 위로 선명한 핏줄기가 스며 있었다. “고맙네.” 엠브릭은 멀어져 가는 루마스의 등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그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많은 매타조의 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

엠브릭의 동료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의심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혹시 다치셨습니까?” 균열방랑자가 물었다. “뭘 받으신 겁니까?”

엠브릭은 첫 번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질문만이 중요했으니까. “가능성.” 그리고 모든 가능성 속에는 희망이 살아 있다.

작가 소개

Alex Acks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이자 지질학자, 멋진 복장을 즐기는 신사다. 그는 필명 Alex Wells로 Angry Robot Books에서 장편 소설 *Hunger Makes the Wolf* (2017 키치스 골든 텐타클상 수상)과 *Blood Binds the Pack*을 출간했다. 또한 스팀펑크 단편집 *Murder on the Titania and Other Steam-Powered Adventures*로 콜로라도 도서상 후보에 올랐으며, 후속작 *Wireless and Other Steam-Powered Adventures*는 Queen of Swords Press에서 출간되었다. 그는 Activision-Blizzard의 *Exploring Azeroth* 시리즈 등 여러 작품을 집필했고, *Six to Start*의 *Marvel Move* 및 *Superhero Workout* 프로젝트에 각본을 썼으며, 보드게임 *Twilight Imperium* 단편 소설도 집필했다. Alex Acks의 단편들은 Tor.com, Strange Horizons, Giganotosaurus, Daily Science Fiction, Lightspeed 등 다양한 매체에 실렸다. Alex는 현재 덴버에 거주 중이며, 고양이 코코 퍼프, 릴리, 버질 더 크라임 빈의 치밀한 감시 속에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lexack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